

‘ㄸ’의 음독 유래에 대하여

魏國峰*

要 約

‘ㄸ’은 고대한국어 차자표기 자료에서 ‘ㅅ’ 내지 ‘시’를 표기하였다. 종래에 ‘ㄸ’과 ‘ㅅ’ 및 ‘시’의 대응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謎題로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ㄸ’을 다른 한자의 약자로 보지 않고 고대한국한자음의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해 왔던 자료 및 연구 방법을 재검토하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고대한국어, 중고한어, 고대일본어의 치음 체계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ㄸ’의 韻尾의 생략은 물론 파찰음과 마찰음 사이의 차이점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다. 3장에서 필자는 陀羅尼經에서 범어의 ‘si, s, s’를 漢譯 佛經에서 ‘ㄸ’로 음譯한 것에 주목하여 고대한국에서도 漢譯된 陀羅尼를 범음으로 송독했으리라고 보고, 그 영향으로 ‘ㄸ’이 고대한국어의 ‘시’ 혹은 ‘ㅅ’을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어: ㄸ(질), 음독, 고대한국한자음, 陀羅尼(다라니)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1. 서론

향가를 표기한 ‘叱’ 및 구결 문자 ‘叱’을 ‘ㅅ’으로 읽는 것은 현재 정설로 되어 있는 듯하다.¹⁾ 하지만 ‘叱’은 어떤 까닭으로 ‘ㅅ’으로 읽혔는지 수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는 謎題로 남아 있다. ‘叱’의 음독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아래와 같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한자음 범주에서 설명하지 않고 ‘叱’을 창안적인 문자 혹은 다른 한자의 약자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朴炳采(1990a: 61)에서는 고유 명사의 어중에서 ‘ㅅ’을 표기한 ‘斯, 所, 西, 沙, 師’ 등이 향찰 표기 체계에서 창안적인 특수용자 ‘叱’로 쓰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金完鎭(1985: 5-6)에서는 ‘叱’을 ‘時’의 略字로 보았다.

둘째, 한자음의 범주에서 ‘叱’의 음독을 설명하려고 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는 俞昌均(1994: 146-14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叱今 或作 尼斯今’〈遺事, 王歷表〉, ‘叱師今’〈三國史記〉에서 볼 수 있는 ‘叱’은 ‘斯, 師’와 等價의이었고, 《日本書紀》의 신라 인명 표기에 나타나는 ‘叱’이 ‘ㅅ’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叱’의 고대한국한자음은 sv라 하였다. 金東소(1998)에서도 일본한자음 자료와 同音異表記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대한국어 단계에서는 ‘ㅅ’과 ‘ㅆ’의 구별이 없다고 하고 ‘叱’의 고대한국한자음을 [si(r)]로 추정할 바가 있었다.

1) 물론 일부 연구에서 아직도 경우에 따라서 ‘叱’과 ‘叱’을 ‘-ㅇ(?)’으로 읽고 있지만 그것은 속격 조사 및 사잇소리의 구별 문제로 보인다. 중세한국 한자음에서 경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氏 씨’, ‘雙 쌍’ 따위는 근대한국어 단계에서 어두 경음화를 겪은 것이다) 고대한국어 단계에 아직 경음 계열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대한국어 단계에서 ‘-ㅇ(?)’을 설정하면 따라오는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고대한국어 단계에 아직 미파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李基文 1972: 84) ‘叱’을 [tʰ]로 읽는 견해에도 역시 문제가 있을 듯하다.

논저마다 ‘叱’의 음독을 설명하려고 가설을 세우고 또 그 가설에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논의하였지만 아직까지 널리 받아들여진 학설은 없다. 무엇보다도 ‘叱’의 한자음과 ‘ㅅ’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대응을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한자음의 범주 안에서 문제를 설명하지 않게 되면 ‘叱’의 음독에 대해서 사뭇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게 됨으로써 논의의 일반성을 잃게 된다. 또 연구자마다 유사 문자 혹은 대용 문자를 서로 달리 선정할 수 있어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필자도 고대한국한자음의 범주 안에서 ‘叱’의 음독을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 우선 전통적인 자료와 연구 방법에 따라 ‘叱’의 음독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와 연구 방법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3장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叱’의 음독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증명하고자 한다.

2. 기존 한자음 자료에 따른 해석

‘叱/叱’은 향가 및 구결 문헌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글자 중의 하나이다. ‘叱’은 신라 향가에서 총 37회, 균여전 향가에서 총 53회나 출현한다. ‘叱’도 마찬가지로 석독 구결자 중에 출현 빈도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 ‘叱’과 ‘叱’의 용례가 상당히 많으면서도 경우에 따라 용법이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제시하자면 방대한 양을 감당할 지면이 없고 필자에게 주어진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부분만 제시한다면 예시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해독자에 따라 이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叱/叱’의 용례를 부득이하게 생략한다. 향가에서의 용례 목록은 박지용 외편(2012: 388-389), 석독 구결에서의 용례는 황선엽 외(2009: 175-205)에

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叱/叱’이 ‘ㅅ’으로 읽힌다는 전제하에서 논의의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 이 장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자료와 연구 방법으로 다시 ‘叱’의 음독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통적인 자료를 韻書에 의존하여 해석해서는 ‘叱’의 음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叱’은 《廣韻》에서 昌栗切로 나와 있다. 漢語 中古音은 昌母 質韻 開口 三等 入聲 臻攝이고 昌母의 中古音 음가 재구는 [tɕʰ]로²⁾ 합의되어 있다. ‘叱’의 중세한국한자음은 ‘쨌’이다. 中古漢語의 [tɕʰ]든 중세한국어의 ‘ㅅ’이든 ‘ㅅ’과 같은 치음 계열에 속해 있으면서도 음가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음 파찰음과 치음 마찰음의 혼란이 일반성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叱/叱’과 ‘ㅅ’의 대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上古・中古漢語와 중세한국한자음에서 모두 이러한 양상이 보인다.

먼저, 시노-티베트어족(漢藏語族)에서 치음의 파찰음은 보편적으로 늦게 출현했고, 일부 시노-티베트어족의 언어의 방언에는 아직도 마찰음만 있고 파찰음이 없다는 것을 鄭張尙芳(2003: 92-103)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가 있다. 范淑玲(2009: 23-24)에 따르면 三國時代의 梵漢 불경 대역에서도 禪母는 파찰음과 대응되어 있었다. 그리고 《顏氏家訓》의 “南人以錢爲涎 以石爲射 以賤爲羨 以是爲舐”에서도 6세기 중국 남부 방언에서 禪母[ʒ]와 船母[dʒ]의 구별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唐初 陸德明의 《經典釋文》과 南唐 朱翱의 반절 및 南宋 朱熹의 반절에서 볼 수 있는 “船禪互切”도 역시 그와 같다. 한편 唐末 長

2) 漢語의 유기음은 음성적으로 영어 등 언어의 유기음처럼 강한 유기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王力 등 학자가 漢語의 유기성을 ‘ㄹ’이 아닌 ‘ㄴ’로 표기하자고 하였다. 더불어, “는 성운학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표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漢語 次清字의 유기성 표기를 ‘ㄴ’로 한다.

安 方言을 반영한 《守溫韻學殘卷》에서 禪母만 있고 牀母는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中古音 시기에 중국의 남부와 북부의 방언에 모두 이러한 치음의 파찰음과 마찰음의 混淆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한자음의 吳音은 물론 漢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 한편, 이러한 양상은 지금의 閩方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嚴修鴻(1997: 86)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마찰음과 파찰음의 交替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고대한국한자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위의 현상들은 오직 유성파찰음과 유성마찰음 사이에서만 일어났다는 점이다. ‘叱’은 차청(무성유기음)자이기 때문에 위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즉, ‘叱’의 문제는 漢語의 음 혼돈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漢語의 음이 고대한국한자음에 불규칙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叱’의 聲母가 고대한국한자음에서 ‘ㅅ’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서론에서 제시한 바가 있지만 실제 자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尼叱今 或作尼斯今(遺事, 王歷表), 尼師今(三國史記)

‘叱’은 心母[ʃ]의 ‘斯’와 生母[ʃ]의 ‘師’와 대응되어 있다. ‘師’와 ‘斯’가 모두 止攝 開口字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대한국한자음은 ‘시’였을 것이다(李敦柱 1990, 權仁瀚 2003)⁴⁾. 그러나 이러한 예만 가지고 ‘叱’이 ‘ㅅ’ 내

3) 물론 이는 중고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대일본어 음운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4) 止攝 한자음에 대한 고찰은 없었지만, 일찍이 金洪坤(1977: 172-173, 187-188)에서 고대한국어의 ‘師, 斯, 叱’을 [ʃi] 또는 [ʃu]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논의에서 ‘叱’이 ‘ㅅ’을 표기한 것은 모음의 탈락으로 해석하였다.

지 ‘시’를 표기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피상적으로 ‘叱’은 ‘시’로 반영되었지만 ‘叱’의 음이 왜 ‘시’였는지 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三國史記》의 차자표기 자료와 중세한국한자음으로 이러한 대응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박창원(1996: 113)에서는 차자표기 자료에서 발견된 마찰음과 파찰음의 혼기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 (2) 가. 秀宗 或云 秀升<사기 권10 신라 10 흥덕>
 나. 敬愼 一作 敬信<유사 권1 왕력 신라 원성>
 다. 分嵯郡 一云 夫沙<사기 권37 백제>
 라. 比斯伐 一云 比自伐<사기 권37 백제>
 마. 昭聖王 一作 昭成王<사기 권1 왕력 신라 소성>

이러한 예가 보인다고 해서 그 현상을 일반화시키면 결과적으로는 고대한국어 단계에서 마찰음과 파찰음의 구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ㅅ/과 /ㅆ/의 구별이 없었다면 후세의 /ㅆ/의 발달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박창원(1996: 113-115)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이론을 확대시키면 치음과 설음 나아가 日母, 影母의 혼용 예도 보이는데 결국 치음은 이들의 음과도 구별이 없었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다. 한편, 권인한(1999)에서도 고대한국어의 치음 계열을 재구했을 때 聲母 간의 혼용으로 ‘A’와 ‘B’의 구별이 없다는 쪽으로 하지 않았고 반대로 ‘A’의 호용 예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A’는 음소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차자표기 자료 속의 동음이표기 예만을 가지고는 ‘叱’과 ‘師, 斯’와의 대응을 설명할 수 없다.

한자음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중세한국한자음은 고대한국어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명과 인명 등의 同音異表記 예는 파편적인 반면에 중세한국한자음은 예가 많고 또 그 자체에 체계성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중세한국한자음의 基層은 차자표기 자료처럼 복잡하지 않고 主基層을 가지고 있다. 河野六郎(1968)은 중세 및 근대 한국어 문헌의 한국한자음을 검토하여 한국한자음에 a, b, c, d 네 가지 층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한자음의 主基層은 b 기층인 8세기 장안음이라고 보았다. 이 주장은 반론도 있었지만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졌다. 최근에 伊藤智ゆき(2007)에서는 河野六郎(1968)의 학설을 부분적으로 비판하고, 河野六郎(1968)에서 a, c, d 층위의 반영으로 본 일부 음들도 b 기층의 반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複層적인 것이라고 하는 점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한자음의 체계는 대체로 균일한 것이라고 하였다(伊藤智ゆき 2007, 이진호 역 2011: 419). 따라서 중세한국한자음을 통한 고찰로 고대한국어 음운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중세한국한자음에서 齒音의 마찰음과 파찰음 사이의 혼란이 일반적인지를 확인하여 고대한국어의 치음 체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예에 불과한 차자표기의 同音異表記 자료만으로는 체계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지만, 중세한국한자음은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음소적인 대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 중에 朴炳采(1990b: 23)에서는 《顏氏家訓》의 자료로⁵⁾ 한국한자음에서 正齒音의 전탁(즉 유성과찰음)이 /ㅈ/으로 나타난 것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창원(1996: 121)의 비판이 있었다. 즉, 정치음은 중국 남방음, 치두음은 중국 북방음이 반영된 과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中古漢語의 선행 연구와 같이, 정치음에서 유성과찰음과 유성마찰음 사이의 혼란은 중국 남부 방언뿐만 아니라 북부 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그러한 비판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중

5) 앞에서 제시한 바가 있다.

세한국한자음의 무성과찰음도 마찰음과 혼란이 있었다.⁶⁾

모든 齒音字를 포괄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臺灣大學 中文系와 中央研究院語言研究所에서 개발한 漢字古今音資料庫(Chinese Character Readings, 약칭 CCR)의 데이터베이스⁷⁾를 이용하여 확인한 齒音字의 수는 아래와 같다.

〈표 1〉 齒音字의 總數

齒頭音	精母	淸母	從母	心母	邪母
	786	598	551	955	245
正齒音 二等	莊母	初母	崇母	生母	俟母
	255	251	240	436	8
正齒音 三等	章母	昌母	船母	書母	禪母
	593	243	77	324	360

齒音字의 총수는 5,922字이다. 이는 개인 연구자가 단기간에 연구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더구나 이 5,922개의 치음자 중의 상당수는 僻字들이고 이들의 한국한자음을 확인할 수 없다. 일부 僻字는 한국한자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음이 聲符에 의해 유추된 것이 대부분이다. 다행히 기존 연구 중에 權仁瀚(2009), 郭錫良(1982) 등 자료집이 있어서 쉽게 통계할 수 있다.⁸⁾ 본고에서는 두 자료집을 모두 이용하였는데 필

6) 해당 자료는 뒤의 〈표 2〉에서 제시할 것이다.

7) 인터넷 주소는 <http://xiaoxue.iis.sinica.edu.tw/ccr/>이다.

8) 權仁瀚(2009)는 중세 문헌에 나타난 한자음만 수록했기 때문에 수록된 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총 5,510여 자였다. 수록된 한자의 수가 적은 반면에 모두 확인이 가능한 중세한국한자음이 포함됐다. 郭錫良(1982)에서는 《說文解字》에 나온 한자를 기준으로 선택했고 일부 僻字를 제외하고 《詩經》에 나온 한자를 모두 포함시켜서 총 8,000여 자를 수록하였다. 비록 일부 한자의 중세한국한자음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대한국한자음은 확인이 가능하다. 중세한국한자음에서 현대한국한자음까지 齒音字가 겪은 음운 변화는 구개음화 과정에서 ‘ㄴ, ㄷ, ㄸ’ 뒤의 ‘ㄱ’가 탈락한 것과 ‘ㄴ, ㄷ,

자가 集計한 바로, 權仁瀚(2009)에 수록된 齒音字는 1,440여 자였고, 郭錫良(1982)에 수록된 齒音字는 2,070여 자였다. 두 자료집에서 확인한 齒音字에서의 파찰음과 마찰음 간의 혼돈 예는 모두 아래의 표에 기입하였다.

〈표 2〉 한국한자음 齒音의 혼란 양상)

	權仁瀚(2009)	郭錫良(1982)
무성과찰음(中古音)⇒ /ㄸ/	渣, 註, 鍾, 鏜, 插, 鍾, 殲, 昭, 沼, 俶, 諄, 肫 ¹⁰⁾ , 焠, 猜, 沁, 漕, 草(총 17개)	詐, 鏜, 舌, 插, 鍾, 殲, 懣, 昭, 沼, 釗, 俶, 諄, 肫, 焠, 猜, 沁, 漕, 草(총 18개)
유성과찰음(中古音)⇒ /ㄸ/	乍, 事, 仕, 士, 查, 射, 蛇, 鑿, 床, 狀, 抒, 紆, 鋤, 僕, 船, 舌, 巢, 贖, 愁, 植, 盾, 脣, 順, 術, 述, 崇, 乘, 繩, 柴, 植, 示, 謚, 豺, 蝕, 食, 神, 儘, 實, 甚, 槎, 甚(총 41개)	乍, 事, 仕, 士, 射, 蛇, 鑿, 牀, 床, 狀, 辭, 鋤, 僕, 譌 ¹¹⁾ , 舌, 巢, 贖, 愁, 植, 植, 脣, 滌, 術, 述, 崇, 乘, 繩, 柴, 柴, 植, 示, 謚, 豺, 蝕, 食, 神, 實, 甚, 槎, 甚(총 40개)
무성마찰음(中古音)⇒ /ㅈ, ㅉ/	莒, 臈, 諫, 峻, 浚, 隼, 棖, 棖, 租, 綰, 縮, 躡(총 12개)	適, 莒, 臈, 峻, 浚, 隼, 隼, 懲, 棖, 租, 綰, 縮(총 12개)
유성마찰음(中古音)⇒ /ㅈ, ㅉ/	苴, 諸 ¹²⁾ , 擅, 臄, 蜀(총 6개)	勻, 苴, 忱, 蜀(총 4개)

ㄸ 뒤의 일부 ‘一’가 ‘丨’로 변화한 전설고모음화 현상밖에 없었다. 齒子音 자체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현대한국한자음을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9) 〈표2〉에서는 기술의 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 한자의 聲母를 일일 표시하지 않고 무성과찰음, 유성과찰음, 무성마찰음, 유성마찰음 네 분류로 묶었다.

10) ‘肫’은 章母와 定母를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의 ‘肫’은 章母이다.

11) ‘譌’의 한국한자음은 ‘가르칠 선’과 ‘지을 찬’ 총 두 개가 있다. ‘譌’은 원래 ‘가르치다’의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한자음은 ‘선’이다. ‘찬’은 ‘譌’이 ‘撰’의 通假字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타난 음이다.

위 표에서 밑줄을 친 한자들은 그 한자음이 유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聲符의 영향을 받아 그 한자음도 聲符의 음과 같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유추에 의한 한국한자음 齒音의 혼란 양상

〈표2〉의 한자	渣	詐	鎔	鎗	鎗 插	懾	昭 沼	俶	焯	沁	藩	仕	驛	紓
유추 參照字	查	乍	事	產	插/ 舌	聶/ 攝	召	叔	粹	心	審	士	射	抒
〈표2〉의 한자	楯 楯	潛	述	柴	柿	蝕	椹 甚	苦	臊 譟	峻 浚 陵	懲	梢 稍 綃	芍	
유추 參照字	盾	脣	術	示/ 柴	市	食	甚	占	操	俊	從	肖	勻	

나머지 한자들 중에 특히 中古音의 유성과찰음이 중세한국한자음에서 /ㄱ/으로 반사된 한자의 수가 많은데 이 중에 사실상 中古音이 아닌 近代音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도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射, 蛇, 繩, 示, 諡, 食, 神’ 등의 성모는 중고음 후기에 일어난 濁音清化 과정에서 일부 유성과찰음이 무성마찰음으로 변화한 양상이(董同龢 1968: 211)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朴炳采(1990b)에서 정치음의 유성과찰음은 한국한자음에서 마찰음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필자가 集計한 위의 자료를 보면 이들은 유추 또는 근대음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中古音과 고대한국어 사이의 음운 대응으로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慈, 曄, 自, 嚼, 柞, 昨, 孱, 棧, 殘, 岑, 暫, 潛, 蠶, 雛, 荏…’과 같이, 필자가 그 예를 모두 集計하기 힘들 정도로 從母, 崇母, 船母가 중

12) ‘諸’의 성모는 禪母와 章母를 가지고 있다. 여기의 ‘諸’는 禪母이다.

세한국한자음에서는 /ㅈ/으로 규칙적으로 반사되었다. 따라서 中古音의 유성과찰음은 중세한국한자음에서 /ㅈ/이 아닌 /ㅈ/으로 나타난다고 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2,000여 자의 齒音字를 集計한 결과에 의하면 소위 한국한자음에서의 파찰음과 마찰음의 혼란 현상을 보이는 예는 80여 자밖에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80여 자 중의 상당수는 유추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나머지 예들은 차용의 시기 문제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한국어 단계에서 /ㅈ/과 /ㅈ, ㅉ/의 구별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추나 근대음의 차용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몇몇 예들은 파찰음과 마찰음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해 생긴 소수의 예외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세한국한자음 齒音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대한국어 단계에서 /ㅈ/과 /ㅈ, ㅉ/ 사이에 혼란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叱’도 그러한 혼란 때문에 /ㅈ/을 표기하게 된 것이라는 견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본 측의 자료를 제시하여 ‘叱’의 음독을 설명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

俞昌均(1994: 146)에서는 《日本書紀》의 신라 인명 표기 ‘毛麻利叱智(モマリシチ)’, ‘微叱旱岐(ミシカムキ)’(日本書紀 九, 神功紀)를 제시하고 ‘叱’과 ‘シ’의 대응으로 ‘叱’의 고대한국한자음을 설명하려고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은 신라 인명이 고대일본어에서 ‘シ’로 반영한 것은 단순히 고대한국한자음의 문제는 아니다. 고대일본어의 음소체계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고대일본어에서 ‘ts’와 ‘s’의 구별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된다. 고대일본한자음의 吳音 자료(《古事記》, 《萬葉集》)과 漢音 자료(《日本書紀》)에서 모두 ‘ts’와 ‘s’의 구별을 찾을 수 없었다.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 4〉 中古漢語 齒音이 《古事記》와 《萬葉集》에 반영된 양상(范淑玲 2009: 21)

聲 母 音 節	精	清	從	心	邪	庄	崇	生	章	船	書	禪
tsa	左佐作績	草酢	酢	散			柴	沙紗	者			
dza					謝邪					射	奢	社
si	子紫進	次此		思四死司新信斯	寺詞		事	師色使	之芝志旨指		詩式水	侍時
zi	盡		自盡慈	司		緇	士仕					時
tsu	酒			須				數	周州洲珠			
dzu												受授殊
se			齊	西							世勢施	
ze												是
tso	宗祖			素蘇								
dzo					俗							
tsö	曾增憎		曾	僧				所				

	則											
dzö			賊 存		序 敍		鋤					
ki									支 枳			
gi									祇			

〈표 5〉 中古漢語 齒音이 《日本書紀》에 반영된 양상(范淑玲 2009: 21-22)

聲 母 音 節	精	清	從	心	邪	庄	初	崇	生	章	書	禪
tsa	左 佐 作	磋 磋					柴		沙 娑		舍	
dza			奘 藏			裝						
si	子 資 玆			思 司 伺 斯 璽	嗣 辭				師	之 芝 志 旨 指	詩 矢 尸 試 始 施 繩	時
zi			自					士				
tsu	酒			秀 須 素						周 主	輸	
dzu												
se			齊 劑	西 栖 細						制	世 勢	
ze												
tso				素 蘇 汭								

dzo	則		曾 層 贈 賊						所	諸		
tsö			鐔		序 敍			鋤				
dzö										枳 祇		

위 표에서 보듯 고대일본한자음에서 치과찰음과 치마찰음 사이의 구별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자유 변이 양상을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中古音의 파찰음이 止攝開口三等, 蟹攝開口三四等 등 細音¹³⁾ 앞에서 대부분 s와 z로 반사되었다는 사실이다. ‘叱’은 臻攝三等이므로 마찬가지로 같은 細音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일본한자음에서 그 자음이 ‘s’로 반영된 것은 원래 고대일본한자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andness(1985), Miyake(2003: 183) 등에서는 고대일본어에 s만 있고 ts가 없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도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叱’이 고대일본어에서 ‘シ’로 반영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가 및 구결에서 음독자는 보편적으로 말음을 차용하여 표기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6〉 말음첨기의 양상

향가 용자	석독구결 구결자	고대한국한자음	음독음
隱	ㄱ	*(C)Vn	-ㄴ
音	ㅁ	*(C)Vm	-ㅁ
乙	ㄷ	*(C)Vl	-ㄷ
尸	尸	*CVr ¹⁴⁾	-ㄹ

13) 細音은 성운학 술어로, 齊齒呼(韻頭나 韻腹이 [i]인 韻)와 撮口呼(韻頭나 韻腹이 [y]인 韻)을 통칭한다.

그리고 목간 자료에서도 ‘ㄷ’의 이체자로 ‘-ㄷ’을 표기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ㄷ’의 고대한국한자음의 발음을 차용하여 음을 표기한 것이었다. ‘ㄷ’은 舌內入聲字이므로 위의 표기 규칙을 적용하면 ‘ㄷ’이 아닌 ‘ㄹ’을 표기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ㄷ’과 ‘ㄷ’의 대응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기존의 자료만을 근거로 해서는 왜 ‘ㄷ’이 ‘ㄷ’을 표기하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파찰음과 마찰음의 대응도 해결할 수 없고, ‘ㄷ’의 入聲韻尾가 어떠한 원인으로 무시되었는지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아 ‘ㄷ’과 ‘ㄷ’의 대응 원인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자료들에만 의거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해석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 필자는 이러한 시도를 해 볼 것이다.

3. 새로운 자료와 해석

‘ㄷ’이 ‘ㄷ’을 표기한 사실에서, 우선 그것이 舌內入聲字임에도 불구하고

14) ‘ㄷ’가 ‘-ㄷ’을 표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경호(2005)는 鄭張尙芳(2003)의 ‘hl-’의 재구를 받아들여 ‘hl-’의 ‘l’로 ‘ㄷ’의 음독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鄭張尙芳(2003)의 학설에 문제점이 있고, 재구음 ‘hl-’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매우 이르며 또 고대한국한자음 자료에서 ‘ㄷ’ 외에 다른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순수히 ‘hl-’에 의지하여 ‘ㄷ’의 음독 유래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필자는 여기서 李方桂(1980)의 상고음 체계를 따라 陰聲字 음절말에 *-g, *-d, *-b가 있었다고 보고, ‘ㄷ’의 음절말 *-d가 고대한국한자음에서 ‘-ㄷ’으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d’가 고대한국한자음에서 ‘-ㄹ’로 반영되었다는 선행 연구는 權仁瀚(1997), 吳世峻(2004) 등이 있다.

고 韻尾가 切捨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서 〈표 6〉에서는 향가 및 구결에서의 말음첨기 양상을 확인한 바가 있었다. 이장희(2005: 34)에서는 舌內入聲이 무시된 ‘悉直郡 一云 史直’의 예를 들어서 ‘叱’의 韻尾가 없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舌內入聲이 반영되지 않은 예는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述川郡 一云 省知貢’¹⁵⁾, ‘單密縣 本武冬彌知 一云 曷冬彌知’ 등의 표기에서 舌內入聲이 반영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므로 모든 ‘叱’ 入聲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박창원(1996)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견해를 확대하면 자칫 고대한국어에 ‘叱’ 말음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서 ‘叱’의 운미 문제는 지명의 同音異表記와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叱’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叱’은 ‘昌栗切’ 이외에 다른 異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보게 된다. 韻書에서 入聲篇에서만 나온 ‘叱’이 ‘ㄷ/ㄷ’을 표시하지 않고 ‘ㅅ’을 표기하였다는 것은 ‘叱’이 陰聲字 讀音까지 가졌을 것임을 암시한다. 기존 연구에서 ‘叱’의 異讀이 있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는 최남희(1999: 224-227)가 있다. 이 논의는 《集韻》에서 ‘叱’의 주석에 ‘叱或作嘯’, ‘嘯’의 입성 주석에 ‘嘯讀爲叱’이라는 기록에서 출발하여 ‘叱’과 ‘嘯’는 완전히 동음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嘯’는 ‘先弔切[sieul], ‘息六切[sĩuk], ‘尺栗切[teĩtɛt] 음 세 개가 있고 일본한자음에서 ‘叱’은 ‘シツ(sitsu)’, ‘シチ(siti)’로, ‘嘯’는 ‘セウ(seu)’, ‘シユツ(siyuku)’, ‘シツ(sitsu)’, ‘シチ(siti)’로 되어 있어 신라 때 ‘叱’과 ‘嘯’는 ‘嘯’의 두 번째 음인 息六切로 발음하였으리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集韻》 및 최남희(1999: 226)에서 제시한 《洪武正韻》 등 운서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로는 ‘叱’과

15) 梁柱東(1965: 649-650)에서 논의하였듯이 ‘省’의 고대한국한자음은 “소/수”이다.

‘嘯’의 동음 기록은 오직 ‘嘯’의 入聲 質韻에서만 발견되고 나머지 두 항에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가령 ‘叱’이 ‘嘯’의 세 가지 음을 모두 가졌다면 당연히 ‘叱’이 운서에서 항목 세 항목이 나와야 하지만 사실상 ‘叱’은 質韻에만 나와 있다. 따라서 ‘嘯’과 ‘叱’의 동음 관계는 오직 이 두 글자가 모두 質韻으로 읽을 때만 이루어지고, ‘嘯’의 나머지 두 음은 ‘叱’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일본한자음에서 ‘シツ(sitsu)’, ‘シチ(siti)’는 ‘叱’과 ‘嘯’의 質韻과 대응되고, ‘嘯’의 나머지 두 음인 ‘セウ(seu)’, ‘シユツ(siyuku)’는 각각 ‘嘯’의 ‘先弔切’과 ‘息六切’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본한자음의 양상을 가지고 신라 때 ‘叱’과 ‘嘯’은 모두 息六切로 읽는다고 본 견해는 무리가 있다.

韻書만을 근거로 上古音이나 中古音을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切韻》 계열의 운서들은 중국 南北 방언의 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擬古적으로 음을 기록한 것이었기(王力 1963/2003: 52-53)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한 시점의 음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현실음은 韻書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운서 이외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叱’이 다른 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야 된다.

일찍이 朴炳采(1966: 2-3)에서 삼국 시대에 불교가 전해 오면서 중국에서의 梵語 音譯의 방식이 고대한국어의 고유어나 가요 표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漢譯 佛經에서의 音譯 양상은 梵語 原語에 따라 세밀한데 고대한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변별적이지 않은 부분은 고대한국어 표기에서 단순화되었다고 논의하였고¹⁶⁾, 이러한 佛經의 對譯字와 對譯 方法의 도입으로 고대한국어의 표기법이 성숙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叱’의 음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필자는 梵語 對譯의 音譯에서 ‘叱’의 다음과 같은 양상을 발견하였다.

16) 구체적인 단순화 양상은 朴炳采(1966: 5-8)의 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표 7〉 漢譯 佛經에서 ‘叱’의 音譯 양상¹⁷⁾

번호	한역	범어/기타 설명	출처	역자
가	叱波	kṣepa	拏吉尼熾盛威眞言品第二	[宋]法護 (963-1058)
나	鉢訥摩(二合引)叱(十七)鉢訥摩(二合)	padme padmā-kṣeme padma	佛說滅除五逆罪大陀羅尼經	[宋]法賢 (?-1000?)
다	摩嚕睹得叱鉢多	mārutot-kṣipta	佛說瑜伽大教王經第三卷	[宋]法賢 (?-1000?)
라	跋囉毖地耶叱陁你	p a r a - w i d y ā cchedanīm	大佛頂首楞嚴神呪	[唐]天竺沙門般刺密帝(生卒年未詳, 705년쯤 訪唐)
마	叱理呬	cchlhīm	文殊師利菩薩最勝秘密一字大明王陁羅尼	[唐]不空三藏法師 (705-774)
바	摩那叱囉	manaḥ-śīlā	觀世音菩薩如意摩尼陀羅尼經	[唐]天竺三藏寶思惟(?-721, 693년 抵洛京)
사	洛叱彌	lakṣmī	佛說大吉祥陀羅尼經	[宋]法賢 (?-1001?)
아	唵叱洛呬焰	om śrhyim	曼殊室利菩薩呪藏中一字呪王經	[唐]三藏法師義淨(635-713)
자	阿叱利	ācari (雲南白族佛教分派)	-	-
차	迦羅跋叱	- 又譯 迦羅跋嗟	翻梵語第三	-

17) 〈표7〉에서 (가-아)의 불경은 中華電子佛典協會에서 불경을 전자화시켜서 만든 사이트인 CBETA(<http://www.cbeta.org/>)를 참고하였고, (자-차)는 臺灣法鼓佛教學院과 臺灣大學의 歷史語言資訊研究小組가 개발한 佛經辭書數位檢索系統(<http://140.112.26.229/>)에서의 자료이다.

위 표 중에 (가·다)에서 ‘叱’은 범어의 ‘kṣe, kṣi’와 대응된다. 여기의 범어 자음군은 ‘kṣ’지만 그것의 실제 음가는 [tʃʰ]였다. 俞敏(1999: 17), 施向東(2009: 20)에 따르면 ‘kṣ’는 원래 범어에서는 자음군이 맞지만 prākṛta(속어 혹은 방언)에서 [tʃʰ]로 발음되고¹⁸⁾ 唐 초기 이전의 譯經師들은 전부 穿二紐(즉 정치음 2등 차칭)로 이 소리를 音譯하였다.¹⁹⁾ 唐 不空 이후가 돼야 譯經師들이 ‘kṣ’를 乞洒二合으로 音譯하기 시작하였다. (가·다)는 비록 宋代에 音譯한 것이었지만 音譯 양상이 初唐 이전의 音譯과 같으므로 音譯 당시에 初唐 이전의 번역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韻書에서 ‘叱’은 정치음 3등으로 나타나나 범어 音譯에서는 정치음 2등으로 나타난다. 이 정치음 2등자로 사용된 ‘叱’에서는 入聲 韻尾 ‘ㄷ’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라, 마, 자)에서 ‘叱’은 ‘che, ch, c’와 대응된다. 범어 音譯에서 ‘ch’와 대응된 한자들은 보통은 穿三紐(즉 정치음 3등 차칭)의 한자들이었다(施向東 2009: 12). 역시 ‘叱’의 韻尾가 音譯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여기서 특히 (라)의 원문 ‘para-widyā cchedanīm(숙적의 저주를 단멸하노라)’를 天竺沙門般刺密帝가 ‘鉢訥摩(二合引)叱(十七)鉢訥摩(二合)’으로 번역한 바도 있었지만 ‘跋囉尾你也(二合引)砌娜寧頁寅(二合引)’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같은 내용은 契丹의 慈賢이 ‘波囉微(入)地也(二合)掣(車曳反)陀(輕呼)爾’로 번역한 바도 있었다. 여기서 ‘砌’와 ‘掣’는 모두 去聲字이므로 ‘叱’도 여기서 거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무엇보다도 주목을 이끄는 것은 (바·아)에서 ‘叱’이 ‘si, ʃ, s’와 대응된 현상이다.²¹⁾ 이는 곧 《三國史記》 지명 표기에서 ‘叱’이 ‘師, 斯’와 같이

18) 施向東(2009: 20)에서 ‘kṣ’가 [tʃʰ]로 발음된 음성적인 해석을 한 바가 있었다.

19) 다만 가끔 牙音으로 이 소리를 音譯할 때도 있다.

20) ‘掣’는 거성과 입성을 모두 가졌지만 뒤에 ‘車曳反’이라는 주석은 이 한자를 거성으로 읽으라고 하는 표시로 보인다.

21) 물론 (사)에서 ‘叱’는 ‘lakṣmī’의 ‘kṣ’와 대응된 것인지 ‘ś’와 대응된 것인지

‘시’를, 향가 및 구결에서 말음 ‘ㅅ’을 표기한 양상과 호응된다. 특히 ‘ᄃ’과 ‘s’는 ‘ㄷ’이라는 한자를 덧붙인 방식으로 범어의 자음 하나를 표기하려고 한 것이었다. 즉, 한자 하나가 범어의 한 자음을 표기한 것이었다.

(자)는 위에서 언급하였고, (차)에서 ‘ㄷ’은 ‘ㄸ’과 대응된다. 필자는 ‘迦羅跋ㄷ’과 대응된 범어 원문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ㄷ’과 대응된 ‘ㄸ’는 치두음 精母에 속한다. 범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위와 같이, ‘ㄷ’이 佛經 音譯에서 쓰인 양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치음 2등 차청과 정치음 3등 차청으로 쓰이고 범어의 개 음절과 대응되었다. 둘째, ‘ᄃ, ᄄ, ᄅ’과 같은 음을 보충적으로 덧붙이는 형식으로 표기한 것도 있다. ‘ㄷ’이 音譯에서 정치음으로 쓰인 경우와 s계열의 음과 대응되는 경우 사이의 차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ㄷ’이 정치음 차청으로 쓰였을 때 범어의 유기권설과찰음 및 유기경구 개음과 대응되는 것은 유사음 대응이라는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여기서 쓰인 ‘ㄷ’은 去聲字가 아닌 入聲字로 보아도 대역의 조잡성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s계열과의 대응은 비록 조음 위치는 가까우나 조음 방법상의 차이 즉, 파찰과 마찰, 유기와 무기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音譯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이상으로 <표 7>에서 漢譯 佛經에서 ‘ㄷ’의 음독 양상을 확인하였다. 지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ㄷ’이 漢譯 佛經에서 사용된 양상과 ‘ㄷ’이 고대한국어에서 ‘시’ 혹은 ‘ㅅ’을 표기한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ㄷ’은 정치음 2등이든 3등이든 고대한국한자음에서 2등과 3등

더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ㄷ’은 ‘kṣ’와 대응될 때는 ‘kṣV’와 대응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므로 여기서 필자는 “lakṣmī”의 ‘k’를 ‘ᄃ’의 韻尾와 대응된 것으로 보고 ‘ㄷ’은 ‘ᄃ’과 대응된다고 본다.

의 구별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침음 차칭이 고대한국어 단계에서 ‘시’ 혹은 ‘ㅅ’으로 반영되었다고 하기에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2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었다. 다만, ‘ㄷ’이 去聲字와 대응된 점을 고려해서 입성 이외에 거성으로 된 발음이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漢語의 거성은 ‘-s’의 탈락으로 생겼다고 본 학설(鄭張尙芳 2003: 212-218)을 받아들인다면 去聲字로서의 ‘ㄷ’은 上古漢語 단계에도 음절말 자음 ‘-s’를 가졌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漢語 성조 기원 학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점들이 더 생긴다. 첫째, ‘-s’의 존재는 언제까지였는가? 고대한국어와 上古漢語의 접촉은 그렇게 이른 시기에 일어났는가? 丁邦新(1981, 1987)에서 일부 한어 성조 기원 가설의 논의에서 제시한 ‘-s’의 존재는 南北朝 시기에도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론의 정밀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여기서 ‘-s’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시기가 매우 이르므로 고대한국한자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둘째, ‘-s’가 고대한국한자음에서도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三國史記》에 나온 모든 同音異表記에서 去聲字의 해독은 모두 다시 일일이 검토한 다음에 새로이 해독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기 전에 ‘ㄷ’과 ‘-s’를 연관시키는 일은 가설 위에 세운 가설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고대한국한자음에 ‘-s’가 반영되었다는 학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三國史記》의 고유 명사 표기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²²⁾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보지만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 다음에 ‘ㄷ’과 범어 ‘si, s, s’의 대응 관계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를 고대한국어 문헌 자료에 끌어오기 전에 풀어야 하는 문제는 과연 고대

22) 일부 논의에서 이미 上古漢語의 ‘-s’, ‘-ʔ’를 고대한국한자음 연구에 도입시켜 보았으나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논의의 정밀성이나 고대한국한자음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고려에서 문제가 보인다.

중국 그리고 고대한국에서 불경을 읽을 때 범어의 원음대로 읽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표 7〉의 자료들은 (자)를 제외하면 모두 출처가 陀羅尼經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陀羅尼經은 불경의呪文으로서, 범어를 의역하지 않고 범어를 그대로 외는 것이다. 이를 의역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陀羅尼經은 그 자체가 신성한 주문이므로 범어의 원음을 그대로 살려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陀羅尼의 내용은 매우 深奧하므로 의역하면 자칫 원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陀羅尼는 고대중국에서 범어대로 읽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音譯하는 것 자체가 陀羅尼를 범어대로 읽으라고 하는 것이다. 陀羅尼經을 살펴보면 音譯字 사이에 빈번히 나오는 ‘引(길게 읽기)’, ‘二合(두 글자를 한꺼번에 읽기)’ 등 주석들이 있다. 이는 곧바로 이 한자들을 한어식으로 읽지 말고 최대한 범어를 흉낼 수 있도록 譯經師들이 애써 주석을 단 것이다.

둘째, 기록을 보자. 《佛頂尊勝陀羅尼》에는 다음과 같은 指示의 글이 있다. ‘夫誦陀羅尼 務存梵音 但取其聲 不取其義 … 應合彈紐 具注其側 幸請審看 萬不失一 不應彈紐而彈紐者 是陀羅尼之大病也 … 如擬學梵音念誦者 先須學梵音’에서 말한 것처럼 陀羅尼는 반드시 범음을 살려서 읽어야 하며, 주석대로 읽어야 하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읽지 않는 것은 陀羅尼의 큰 결함이 되고 만약에 범음을 본뜨려면 먼저 범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宋代 鄭樵의 《通志·六書略》에서 ‘今梵僧呪卽雨應 呪龍則龍見 … 華僧雖學其聲 而無驗者 實音聲之道有未至也’의 내용은 그 당시에 중국 승려들이 陀羅尼를 범어대로 읽었지만 일부 승려들의 音聲(발음)이 범어 원음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그 당시의 중국 승려들이 모두 애써 陀羅尼를 범어대로 읽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들이 法事를 치를 때 그 성공 여부는 陀羅尼의 범어를 얼마나 잘 본떴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기록을 통해서 陀羅尼를 범어식으로 읽지 않으면 주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때의 승려들은 陀羅尼를 범어식으로 읽으려고 노력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대중국이나 고대한국에서는 陀羅尼의 범음을 최대한 원음대로 읽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금의 중국 승려들도 陀羅尼를 송독할 때 최대한 범어대로 읽으려고 한다.

이상으로 과거 중국에서는 陀羅尼를 범어대로 읽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고대한국국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조선시대에 간행된 일부 한글 병기 陀羅尼經을 확인해 보면 音譯字 옆의 주음은 한국한자음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최초의 한글 병기 陀羅尼經인 《五大眞言》에서는 梵字까지 병기하였고 일부 한자 옆의 주음은 중세한국한자음이 아닌 범어대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沒 ㅁ, 室 ㅅ/시, 嚩 ㅂ’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렇게 범음대로 읽으려고 한 노력은 신라 및 고려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라와 고려의 국교가 불교인 만큼 陀羅尼도 가장 바람직한 범음식으로 읽혔으리라고 본다. 한반도에서 陀羅尼經의 간행의 역사는 무려 8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현재 알려진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물인 만큼 한반도에서 陀羅尼經을 송독한 역사도 상당히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불교를 숭상하고 佛經의 精華인 陀羅尼經을 중시하였던 시기였는데 陀羅尼를 완전히 고대한국한자음식 혹은 고대한어식으로 읽었을 리가 없다. 적어도 범음과 고대한국한자음을 섞어서 陀羅尼를 송독했을 것이다. 불교와 불경이 전래될 때 陀羅尼 부분을 범음식으로 읽어야 하는 ‘守則’도 또한 정해진 대로 함께 전해졌을 것이다. 중국 송나라 사신 徐兢이 고려를 방문한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필자의 가정을 지지해주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高麗圖經》 권18 釋氏에서 ‘至其梵唄 則又歎舌不復可辨以’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고려 시대 사람들은 비록 범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불경을 송독할 때 梵唄는 범어로 송독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다음에 규명해야 할 것은 과연 陀羅尼 즉 音譯 佛經이 고대한국 한자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선행 연구 중에 姜信沆(1997, 2004, 2008)에서 한국한자음은 佛經誦讀에 의해 전해져 왔다는 학설을 세운 바가 있었다. 필자는 현재 이 학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필자가 보충할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일찍이 朴炳采(1966)에서 향가 표기에 나타난 ‘阿, 伊, 烏, 去, 多, 波’를 梵語 音譯字로 본 바가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 《三國史記》에서 지명, 인명의 同音異表記에 사용된 한자 중의 대부분은 陀羅尼經에서 범어를 音譯할 때 사용된 한자들이다. 그 예로서 ‘伽, 矩, 奈, 弩(拏), 尼, 多, 達, 羅, 利, 摩, 未, 比, 舍, 娑, 素, 瑟, 悉, 阿, 也, 尔, 鬱, 枳, 智, 鄒, 波, 婆’ 등이 있다. 이 한자들은 모두 고대한국어의 지명, 인명, 관직명에서 음독자로 사용되었다.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한자들은 모두 고대중국에서 陀羅尼를 音譯할 때 사용되었던 한자들이다. 동일한 음을 가진 한자들은 얼마든지 있고, 위의 한자 중의 상당수는 실제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들이라는 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고유어 표기에 사용된 이 한자들이 陀羅尼經에서 사용된 音譯字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단순히 우연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이는 한자와 한자음의 대량 차용이 불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이 있다. 고대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音譯字들을 가장 먼저 외워서 익숙해졌고 그 결과 고유어의 표기에서도 이러한 한자들을 선택했다고 본다.

둘째, 역시 한자 사용에서 찾은 단서이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사용된 이체자들도 陀羅尼經에서 사용된 音譯字와 같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보이는 ‘陁, 尔’ 따위의 異體字들은 원래

陀羅尼를 音譯할 때 사용된 것들이다. 異體字까지 똑같은 것으로 보아 陀羅尼와 고대한국어의 차자표기는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하지만 고대한국한자음에서 범음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상고한어나 중고한어의 영향보다 더 컸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陀羅尼經이라고 해도 완전히 범어의 음으로 발음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범어를 매우 잘하는 승려를 제외하면 고대중국의 대부분 승려들은 한어식 범어로 송독했을 것이다. 이는 陀羅尼經의 음독 주석이 모든 한자나 어절 뒤에 달았던 것은 아니었던 점, 주석을 달았어도 범어의 음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다. 위에서 제시한 鄭樵의 《通志·六書略》의 기록도 그 당시 중국 승려들이 陀羅尼를 범음으로 송독하려고 노력했으나 완전히 범어로 하지 못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일부 한자들은 범어 음역 때문에 비상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한자들의 음은 본래의 한자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하게 범어식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叱’도 그 본래의 음이 범어의 ‘*si*, *ʃ*, *s*’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했다고 본다.²³⁾ 漢譯 佛經들이 고대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陀羅尼들은 그러한 梵漢混合의 형식으로 유입되었다가 점차 고대한국어식으로 정착되었으면서도 陀羅尼에서 유난히 범음을 살려야 하는 한자들은 보수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본다. 《五大真言》은 이러한 전통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叱’이 陀羅尼에서 ‘*si*, *ʃ*, *s*’를 표기한 것은 그대로 고대한국에 전해왔다고 본다. 이러한 까닭에 ‘叱’은 인명의 同音異表記에서 ‘師, 斯’와 대응되고 향가 및 구결에서 ‘ㅅ’을 표기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23) 반면에 본래의 한자음과 비슷한 음의 경우는, 고대한어음으로 송독하고 또 차용할 때도 고대한어음을 차용했다고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범어 대역에 나오지 않은 한자들은 당연히 고대한어음을 차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표 7〉에서 ‘叱’이 陀羅尼經에서 ‘kṣe, che’ 등과도 대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叱’이 원래 正齒次清字이기 때문에 ‘kṣ, ch’ 등과 음성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陀羅尼에서 특별히 이를 범어식으로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된다.

이상으로 陀羅尼에서 ‘叱’이 ‘si, ʃ, s’와 대응되어 고대한국어 단계에서 그것이 특수한 음인 ‘시’와 ‘스’를 가졌다고 본다. 특히 그 당시의 漢語에서 ‘CVs’와 같은 음절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한국어 고유어의 ‘스’를 표기하고자 할 때 본래의 고대한국한자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고유어의 ‘스’를 ‘叱’의 陀羅尼식 음으로 표기했던 것으로 본다.

4. 결론 및 남은 문제

본고에서는 종래에 해결할 수 없었던 ‘叱’과 ‘시’ 및 ‘스’과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叱’을 다른 한자의 약자로 본다는 것은 연구자마다 생각하는 原字가 다를 수 있어 연구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자는 ‘叱’을 고대한국한자음의 범주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제시되었던 자료를 검토하고 중고한어와 고대한국어의 치음 계열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론은 고대한국어 단계에서 /ㅅ/과 /ㅈ/ 사이의 혼란은 없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대일본어 자료에서 ‘叱’과 ‘シ’의 대응은 고대일본어 치음 체계 자체의 문제라고 보았다. 기존에 제시한 모든 제안들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종래의 연구에서 ‘叱’의 入聲 韻尾의 생략은 물론, 파찰음과 마찰음 사이의 차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3장에서 필자가 새로 제

시한 자료는 바로 陀羅尼에서의 音譯 자료들이었다. 필자는 姜信沆(1997, 2004, 2008)에서 제시한 한국한자음은 漢譯 佛經의 전래와 동시에 들어왔다는 학설을 받아들이고 일부 한자의 독음은 범음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보았다. 특히 송독을 범음식으로 해야 되는 陀羅尼에서 범음으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일부 ‘ㄸ’은 陀羅尼에서 범어의 ‘*ṣi*, *ṣ*, *s*’와 대응되는데 이러한 범음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한국어 문헌에서 ‘ㄸ’이 ‘시’와 ‘ㅅ’을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필자의 논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陀羅尼에서 ‘ㄸ’의 출현 빈도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ㄸ’과 ‘*ṣi*, *ṣ*, *s*’의 대응에는 각각 하나씩만 찾을 수 있었다. 고대한국에서도 陀羅尼를 범음식으로 모방하여 송독했다고 본 필자의 주장이 맞더라도 ‘ㄸ’의 출현 빈도가 낮기 때문에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ㄸ’의 음독을 陀羅尼와 관련시켰는데 《三國史記》·《三國遺事》에서 볼 수 있는 同音異表記도 陀羅尼와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陀羅尼에서의 한자 음독 방식은 복잡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므로 여기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길 수 밖에 없다.²⁴⁾

그러나 ‘ㄸ’과 ‘ㅅ, 시’의 대응의 문제는 현재까지 아직 통설이 나오지 않는 만큼 새로운 자료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비록 필자의 견해도 가설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ㄸ’과 ‘ㅅ, 시’의 대응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기존 연구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다시 접근하려고 한 것을 이 논문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도 ‘ㄸ’과 ‘ㅅ, 시’의 대응에 대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24) 일찍이 朴炳采(1966)에서 향가표기에 나온 몇몇 한자를 범어 음역의 양상과 관련시킨 바가 있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다룬 梵語 音譯字의 양은 매우 적다. 또 향가뿐만 아니라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의 표기 양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논저류〉

- 姜信沆(1997), 「韓國漢字音(高麗譯音)의 舌內入聲韻尾 -t>-l에 대하여」, 『梧堂 趙恒瑾 先生 華甲紀念論叢』, 梧堂 趙恒瑾 先生 華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재수록: 姜信沆(2003), 『韓漢音韻史 研究』, 태학사, 53-73.]
- 姜信沆(2004), 「『五大眞言』 안의 漢字에 대한 한글 注音 고찰」, 『韓國語研究』 2, 韓國語研究會, 31-56.
- 姜信沆(2008), 「韓國漢字音에 끼친 漢譯佛經의 영향」,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7-2, 193-228.
- 權仁瀚(1997), 「한자음의 변화」, 『國語史研究』, 태학사, 283-344.
- 권인한(1999), 「고대국어의 처음계열에 대한 연구」,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73-107.
- 權仁瀚(2003), 「고대 한국한자음에 관한 몇 가지 생각: 『斯』의 고대 한국한자음 문제를 중심으로」,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9-26.
- 權仁瀚(2009),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資料篇』, 박문사.
-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完鎭(1985), 「特異한 音讀字 및 訓讀字에 대한 研究」, 『東洋學』 1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17.
- 金洪坤(1977), 「固有語表記에 使用된 「叱」字의 音價變移에 對한 考察」, 『국어국문학』 75, 국어국문학회, 161-188.
- 朴炳采(1966), 「鄉歌 表記의 源流的 考察」, 『국어국문학』 32, 국어국문학회, 1-11.
- 朴炳采(1990a), 『古代國語學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朴炳采(1990b), 『古代國語의 音韻比較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 박지용 외 편(2012), 『항가 해독 자료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창원(1996), 「고대국어의 치음」, 『國語學』 27, 國語學會, 99-130.
- 양정호(2008), 「鄉歌 解讀과 子音體系」, 『國語學』 51, 國語學會, 339-364.
-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 兪昌均(1994), 『鄉歌批解』, 螢雪出版社.
-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改訂版)』, 塔出版社.
- 李敦柱(1990), 「항가 용자 중의 ‘賜’자에 대하여」, 『國語學』 20, 國語學會, 72-89.
- 이장희(2005), 「고대 국어의 치음 체계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27, 문학과 언어학회, 25-44.
- 千素英(1985), 「鄉歌의 ‘叱’字 表記에 대하여」, 『于雲 朴炳采博士 還曆紀念論叢』, 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硏究會, 475-498.
- 최남희(1999),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 연구』, 박이정.
- 한경호(2005), 「고대 한국어 借字 표기 ‘尸’ 음가의 고찰」, 『成均語文硏究』 40, 成均館大學校 成均語文學會, 317-376.
- 황국정(2004a), 「15세기 국어 음절말 ‘ㅅ’의 기원적인 음가에 관한 연구: ‘音叱多(如)/ㅅ七」의 독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2, 국제어문학회, 25-62.
- 황국정(2004b), 「차자(借字) ‘叱’의 음가에 대한 재검토: 속격 ‘ㅅ’의 기원적인 음가 추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319-349.
- 황선엽 외(2009), 『釋讀구결사전』, 박문사.
- 郭錫良(1982),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 董同龢(1968/2004), 『漢語音韻學』, 中華書局.
- 范淑玲(2009), 「日本上代、中古音韻與漢語中古音的比較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 施向東(2009), 『音史尋幽(施向東自選集)』, 南開大學出版社.
- 嚴修鴻(1997), 「連城方音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 吳世峻(2004), 「從古代韓國漢字音看“上古漢語陰聲字具輔音韻尾說”」, 『中國言語研究』 19, 585-611.
- 王力(1963/2003), 『漢語音韻』, 中華書局.

- 俞敏(1999), 『俞敏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 李方桂(1980),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 丁邦新(1981), 「漢語聲調源于韻尾說之檢討」, 『漢學會議論文集』.[재수록: 丁邦新(1998), 『丁邦新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83-105.]
- 丁邦新(1987), 「上古陰聲字具補音韻尾說補證」, 『師大國文學報』 16.[재수록: 丁邦新(1998), 『丁邦新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33-41.]
-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 周法高(1974),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社.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이진호 역(2011), 『한국 한자음 연구』, 역락.]
- 平川彰(1997), 『佛教漢梵大辭典』, 靈友會.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재수록: 『河野六郎著作集 2』(1979), 平凡社.]
- Miyake, Marc Hideo(2003), *Old Japanese: a phonetic reconstruction*, RoutledgeCurzon.
- Sandness, Karen(1985), The Pronunciation of the S-Initial Syllables in the Nara Period: A Critical Look at Arisaka's and Mabuchi's Theories, *Papers in East Asian Phonology* 3, 1-16.
- 〈인터넷 자료〉
- <http://140.112.26.229/> (佛經辭書數位檢索系統, 臺灣法鼓佛教學院・臺灣大學歷史語言資訊研究小組)
- <http://www.cbeta.org/> (CBETA, 中華電子佛典協會)
- <http://xiaoxue.iis.sinica.edu.tw/ccr/> (漢字古今音資料庫, 臺灣大學中國文學系・中央研究院資訊科學研究所)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정하상관 1113호)

E-mail: wgf871124@naver.com

접수일자: 2013. 11. 28.

심사일자: 2014. 01. 20.

게재결정: 2014. 02. 17.

About the Origin of the Phonetical Reading of ‘叱’

Wei, Guofeng

‘叱’ was used to write ‘s’ or ‘si’ in the Old Korean literature data written in borrowed Chinese characters. Many researchers suggested lots of alternatives to try to explain this phenomenon, but still it is a remanent puzzle now. In this study, I consider that ‘叱’ in the data was not an abbreviation of another character. I try to explain this problem in the category of Old Korean Sino-Korean sounds. In Chapter 2, I use the data and the methods which was adduced in the previous studies again to approach this problem. I search the dental consonant systems of Old Korean, Ancient Chinese and Old Japanese, it turns up that both the omission of the final consonant and the difference between fricative and affricative can not be explained. In Chapter 3, I find that ‘叱’ was used to write Sanskrit ‘śi, ś, s’ in the Chinese translation dharanis. Meanwhile, I believe that ancient Koreans imitated Sanskrit to recite the dharanis. I consider that for this reason, ‘叱’ was used to write Old Korean ‘s’ or ‘si’.

Key-words: 叱(chi), phonetical reading, Old Korean Sino-Korean sound, dharani